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며,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24. 12. 23.

자료문의 : 대검 형사선임연구관실

전화번호 : 02-3480-3425

주책임자 : 형사선임연구관

제목

'24년 11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24년 11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음 (* 상에 내용 별첨)

① 정부 지하자금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여 1억 3,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2명만 불구속 송치한 사안에서, 관련 대화 녹음파일 확보 및 대검 감정,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분석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 3명을 인지하고 2명을 직접 구속한 사례 [의정부지검]

② 친족상도례 대상이라며 불송치한 사건을 이의신청으로 송치받은 후, 예전 배우자들의 진술 확보, 계좌분석, 피고인의 과거 사건 전수 검토 등을 통해 피고인이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밝히고, 혼인 무효일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한 사례 [부산동부지청]

③ 군사용 장비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IC칩(약 141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한 다음 중국에 밀수출한 수출업체 대표 등 2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한 이후, 계속 수사하여 위 업체로부터 밀수출 방조 대가로 4억 3,000만원을 수수한 유통대리점 이사, 위 업체에 약 17억원 상당의 IC칩을 몰래 빼돌려 공급한 유통업체 대표 등 2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범죄수익환수까지 한 사례 [수원지검]

④ 지적 장애인인 부하 직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해지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착복한 장애인고용업체 부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끈기있고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히고 직접 구속하여 기소함으로써 장애인 착취 사범을 엄단한 사례 [제주지검]

⑤ [안산지청 변진환 검사] 부부장검사로서 주요 사건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맡아 수사함에도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하고, 잦은 재배당으로 부서 내 장기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진하여 다른 검사들의 장기미제를 재배당받아 처리하여 4개월 초과 장기미제를 일소하였으며, 사법통제도 철저히 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

⑥ [성남지청 고은진 검사] 부서 전입 후 3개월 동안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1년 초과 미제 12건을 재배당받는 등 다수의 장기미제를 충실히 보완 수사하여 종국처분하고, 암장될 뻔한 살인 사건을 초동단계부터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등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함

⑦ [원주지청 류미래 검사]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하며 적극적으로 진술을 청취하여 재배당된 다수의 장기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등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분하고, 이송 및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장기화된 다수의 사건들을 신속히 종국처분하는 등 충실히 사건을 처리하였음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단 장	
	부장검사	
1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 조사단	<p>【정성처리, 실제적 진실 규명】 정부 지하자금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여 1억 3,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2명만 불구속 송치한 사안에서, 관련 대화 녹음파일 확보 및 대검 감정,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분석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 3명을 인지하고 2명을 직접 구속한 사례</p> <p>사안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 공모하여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21. 3. '정부가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 자금주로부터 100억원을 빌려 입금한 통장과 출금한 100억원 수표사본 등이 있으면 지하자금 400억원을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중 80억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정부 지하자금 양성화가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조성비 명목으로 1억 500만원을 편취 [사기] ○ (A) '21. 4. 피해자에게 정부지하자금을 구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3,100만원을 편취 [사기]
	최현기(23)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의 관련자들의 가담여부 확인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A, B 2명만 불구속 송치한 사안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범죄 공인전문검사(2급)로써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중요 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송치 후 수사를 담당
	이성일(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고소인으로부터 범행 당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새로 확보한 후 해당 파일의 편집여부에 대해 대검에 감정을 의뢰하여 녹음 파일에 편집이 없음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병행하여 피고인, 참고인들이 동종 수법의 사기사건으로 처벌받은 내역이 있는지 검토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와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분석을 통해 범행 당시 사실 관계를 전부 재구성하고,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 부장검사가 직접 참석하여 본건이 조직적 사기 범행임을 적극 설명 - 이를 통해 불구속으로 송치한 주범 2명(A, B)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공범자 3명(C, D, E)을 입건 후 C, D 2명을 기소하여, 대표적 민생 침해범죄인 조직적 사기범행을 엄단하였음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2	부산동부지청 형사제2부	<p>【정성처리】 친족상도례 대상이라며 불송치한 사건을 이의신청으로 송치받은 후, 예전 배우자들의 진술 확보, 계좌분석, 피고인의 과거 사건 전수 검토 등을 통해 피고인이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밝히고, 혼인 무효일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한 사례</p> <p>사안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송치) '19. 5. ~ 8. 총 3명의 피해자(3번째 범블혼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약 7,700만원 상당 편취 [사기] ○ (송치) '23. 3. ~ '24. 6. 총 4명의 피해자들(연인관계 및 가족)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약 900만원 상당 편취 [사기]
	천헌주(36)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불송치 결정 후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친족상도례 악용 사기 사건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 및 피해자들 조사, 계좌추적, 피해자 추가제출 자료 분석 및 관련 기록 검토 (① 피고인이 동일 수범으로 2번째 배우자와 동거 여성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 등에서 주요 증거 확보, ② 4번째 배우자가 피해자인 경찰 수사 사건의 주요 증거 확보, ③ 유사 수범 송치 사건(피해자 4명) 재배당을 통한 주요증거 확보) 등을 통해, 피고인의 기존 사건 간 유사성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혼인 제도를 금전 편취 목적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규명 ○ 친족상도례 적용시 '혼인 무효 사유'에 관해 '부부 사이의 내밀한 문제'에 해당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밝히고, 혼인이 무효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직접 구속기소함으로써 친족상도례 악용 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였음
	김광제(변8)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3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 수사부	<p>[정성처리] 군사용 장비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IC칩(약 141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한 다음 중국에 밀수출한 수출업체 대표 등 2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한 이후, 계속 수사하여 위 업체로부터 밀수출 방조 대가로 4억 3,000만원을 수수한 유통대리점 이사, 위 업체에 약 17억원 상당의 IC칩을 몰래 빼돌려 공급한 유통업체 대표 등 2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범죄수익환수까지 한 사례</p> <p>사안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 A, B는 밀수출업체 임직원, C는 D를 통해 A, B에게 중국 수출이 제한되는 반도체 IC칩을 판매한 유통대리점 이사, D는 A, B와 C 사이의 유통업자로, - (A, B) '19.~'23.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 141억원 상당을 산자부장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 위 반도체 대금 141억원 중 75억원을 다른 수출대금인 것처럼 입금받아 범죄수익을 가장, C에게 위 IC칩이 은밀히 유통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며 4억 3,000만원 교부[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배임중재] ○ (C) '20.~'23. A, B로부터 위와 같이 4억 3,000만원 수수 [배임수재] ○ (D) '19.~'23. 미국에서 수입한 17억원 상당의 IC칩을 견본품으로 위장하여 A, B를 통해 산자부장관 허가 없이 밀수출 [관세법위반 등]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반도체 IC칩은 군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자재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밀수출이 지속되면 국내 방산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상황 ○ 검찰은 세관에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계좌내역, 수출입 내역 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직접 수사하여, 미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한국 내에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된 IC칩이 은밀하게 재수출되는 구조적 비리를 밝혀내고, 그 유통구조의 핵심 관계자들을 엄단한 사안 ○ 특히 수출업체 대표 등이 밀수출한 대금을 합법적 수출인 것처럼 위장한 사실까지 밝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하면서, 약 35억원 상당의 피고인들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까지 동결하였음
	박경택(36)	
	김정국(35) ※형사4부장	
김병진(변7)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4	제주지검 형사제3부	<p>【정상처리, 장애인 대상 범죄 중단】 지적 장애인인 부하 직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해지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착복한 장애인고용업체 사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끈기있고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히고 직접 구속하여 기소함으로써 장애인 착취 사범을 엄단한 사례</p> <p>사안 개요</p> <p>○ '21. 11. ~ '23. 1. 지적 장애인인 부하 직원 명의 계좌 신청 파일 등을 위작하여 개설한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약 2,300만원을 이체하고, 위 직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약 1,2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사전자기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기록행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p> <p>선정 이유</p> <p>○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한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1차례 기각된 후 불구속으로 송치된 사건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 4회 조사 및 피해자 3회 면담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진술이 피고인의 회유에 의한 거짓 진술임을 밝혀내고, -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사용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내역 분석 등 직접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대출 신청 파일 위작 및 컴퓨터 사용사기 등 추가 범행까지 규명하여 직접 구속하여 기소 <p>○ 검찰의 끈기 있고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장애인고용 우수 업체 간부가 오히려 지적장애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건의 범행 전모를 밝혀 엄단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함</p>
	남대주(37)	
	손아령(변11)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5	안산지청 형사제1부	<p>【형사부 본연의 임무 충실】 부부장검사로서 주요 사건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맡아 수사함에도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하고, 잦은 재배당으로 부서 내 장기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진하여 후배 검사들의 장기미제를 재배당받아 모두 처리하여 4개월 초과 장기미제를 일소하였으며, 사법통제도 철저히 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p> <p style="text-align: center;">선정 이유</p>
	김형원(34)	<p>○ 안산지청 변진환 검사는 3개월 동안 하반기 인사, 보직 변경 등으로 재배당받은 52건을 처리하고, 수차례 재배당이 반복되면서 부서 내 장기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건은 물론 자진하여 후배 검사들의 장기미제 37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는 한편,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하는 등 11월말 기준으로 4개월 초과 장기미제를 모두 처리하였음</p>
	변진환(38)	<p>○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장기화된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실체를 밝혀 기소하고, 주요 사건을 직접 조사하여 기소한 후 직접 공소유지를 진행하였으며, 기록 1,000쪽 이상의 사건 다수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였고, 철저한 사법통제를 통해 주문을 변경토록 하거나 구속되도록 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p>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6	성남지청 형사2부	<p>【형사부 본연의 임무 충실】 부서 전입 후 3개월 동안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1년 초과 미제 12건을 재배당받는 등 다수의 장기미제를 충실히 보완 수사하여 종국처분하고, 암장될 뻔한 살인 사건을 초동단계부터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등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함</p>
	박순애(36)	<p>선정 이유</p> <p>○ 성남지청 고은진 검사는 공적기간인 9월 형사부에 전입한 이후 재배당받은 1년 초과 미제 12건을 포함한 장기미제 다수에 대해 많은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하고 충실한 법리 검토를 통해 종국처분 등 충실한 수사를 이어왔음</p>
	고은진(변4)	<p>○ 재배당받은 피의자들이 전부 혐의를 상대에게 전가하는 2년 초과된 사기 사건, 혐의 부인하는 1년 초과된 준유사강간 사건, 다수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2년 초과된 업무상횡령 및 배임 수증재 사건 등을 신속히 조사하여 기소하는 한편, 목격자가 없고 피의자가 부인하는 등 단순 자해 변사 사건으로 마무리될 뻔한 살인 사건에 대해 검시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체를 규명하는 등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하였음</p>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7	원주지청 형사1부	<p>【형사부 본연의 임무 충실】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하며 적극적으로 진술을 청취하여 재배당된 다수의 장기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등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분하고, 이송 및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장기화된 다수의 사건들을 신속히 종국처분하는 등 충실히 사건을 처리하였음</p>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지청 류미래 검사는 수사경력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20여명의 사건관계인들을 대면조사하며 적극적으로 진술을 청취하여 실체를 밝히는 등 사건을 충실히 처리하면서도 미제를 최소화하고, 재배당받은 다수의 장기미제들도 신속히 처리하였음 ○ ① 데이트 폭력 추가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탄원서를 접한 즉시 피해자를 면담하여 여죄를 인지하고 생계비를 지원한 사례, ② 지적장애 2급의 피해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충실한 피해자 조사를 통해 공동감금, 공동폭행, 강제추행 등을 추가 인지한 사례, ③ 2020년 고소 이후 이송 및 보완수사 요구 3회를 통해 4년간 처리되지 아니한 사건을 재배당받은 후 신속하게 조사하여 기소하는 등 3회 이상 보완수사 요구 후 송치된 장기화된 사건 15건을 종국처분하는 등 충실히 수사함
	장인호(36) ※ 現 방위사업청 근무	
	류미래(변10)	